

중등 금융교육 표준안 교재 적용에 관한 실행연구 - 『슬기로운 생활 금융』을 중심으로

김 만 규
인천마전초등학교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과거 자본주의에서 기업의 성장과 발전을 위한 촉진자 역할을 했던 금융은 현대 자본주의에서는 실물 경제의 주인 내지 그 자체 성장산업으로 등장하였다(전창환, 2008: 126). 현대 자본주의 경제에서 금융이 차지하는 비중은 점차 커지고 있으며 금융이 발달해야 경제가 발전할 수 있다는 논리가 지배적이다(구재운, 2005: 181). 하지만 금융의 역할이 커질수록 그에 따른 위험도 커지기 마련이다.

2007년 미국에서 시작된 서브프라임 사태, 2011년 유럽발 재정위기는 금융이 제 기능을 수행하지 못했을 때의 위험성을 극단적으로 보여주었다. 이에 각국은 금융위기로 촉발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하여 그 원인을 찾았다. 이러한 금융위기의 주요 원인으로는 부적절한 금융상품 판매관행, 금융관계자들의 도덕적 해이, 과도한 증권화, 불완전한 회계제도, 신용평가사의 과오, 규제차익, 유동성 위험, 과도한 레버리지 등이 있다(노형식, 2009: 4).

이러한 여러 원인과 함께 개인의 금융소양 부족 또한 금융위기의 하나의 원인으로 꼽을 수 있다. 비윤리적 금융상품 구매, 무분별한 주택구입과 무리한 대출의 주체는 개인이기 때문이며 결국 개인 역시 오늘날의 금융위기에 대한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 이에 대해 앨런 그린스펀(Alan Greenspan) 전 미연방준비제도 이사회(FRB) 의장은 “문맹은 생활을 불편하게 할 뿐이지만, 금융문맹(Financial Illiteracy)은 생존을 불가능하게 하기 때문에 문맹보다 더 무섭다”고 개인의 금융지식과 소양에 대하여 강조한 바 있다(조영석, 박송춘, 2010: 1185).

이에 전세계 금융선진국들은 ‘금융문맹’ 퇴치를 위하여 저마다 금융교육 발전방안을 내놓고 발빠르게 대응하고 있다. 미국과 영국은 정규교육과정에 금융과목을 개설하고 학교교육과정을 통하여 금융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일본을 비롯한 금융선진국들은 민관 연계의 청소년 금융교육 프로그램 추진체계를 구축하여 금융교육을 강화하고 있다(방혜영, 2010: 23).

우리 나라도 IMF 외환위기와 2003년 신용카드 사태를 계기로 각계에서 금융교육의 부재로 인한 문제들을 심각하게 인식하기 시작하였고, 이러한 현상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금융교육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확산되었다(금융감독원, 2007). 이에 정부는 2008년 9월 기획재정부에서 ‘경제교육지원법’을 입법 예

고하여 2009년부터 시행하였으며 이에 따라 금융 및 경제교육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이 점차 높아졌다(기획재정부, 2008).

금융 경제교육에 대한 높아진 사회적 관심에 비해 국민들의 금융지식은 많이 부족하다. 2010년 9월에 금융감독원에 의해 시행된 금융교육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초·중·고등학생 600명, 교사 180명, 학부모 180명), 응답자의 93.5%가 일상생활에서 금융이 중요하다고 보면서 자신들이 현재 가지고 있는 금융 지식은 부족하고(38.5%), 금융교육을 하려고 하더라도 자료가 부족하다는 응답(44.1%)이 많았다(금융감독원, 2010: 37). 이는 가정에서의 금융교육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기 어려우며, 국가 사회적으로 금융교육의 여건이 제대로 잡혀있지 않음을 뜻한다. 동시에 이러한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먼저 공교육을 통한 금융교육의 강화가 이루어져야 함을 시사하였다.

그러나 현재 초등의 경우 금융교육이 정규교과로 편성되어 있지 않으며, 금융교육을 주도해야 할 사회과에서 금융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은 낮고 체계적이지도 않았다. 이러한 상황에서 학교 밖 금융경제교육은 학교 교육을 대체하거나 보완해주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었다. 학교 밖 경제금융교육은 여러 가지 다양한 활동으로 구성되어 있어 학생들의 흥미를 유발하였으며 학교 현장의 교사보다 강사들의 금융에 대한 지식이 많아 전문적인 교육을 실시할 수 있었다. 또한 실생활 중심적이어서 동기유발이나 이해도가 높고 자료의 측면에서 강점을 가지고 있었다(한경동, 2006: 195).

하지만 학교 밖 금융교육은 다음의 몇 가지 문제점을 노출하였다. 첫째, 체계적인 금융교육 시스템은 구축되고 있지 못하며 체계적으로나 실효성 면에서 여전히 미흡하였다(조영석, 2010: 1186). 둘째, 지나치게 금융내용만을 강조하여 기능과 가치·태도를 함양하기 어려우며, 각 기관마다 내용의 중복으로 비효율적이었다(윤선미, 200: 56). 셋째, 학교 밖 금융교육의 내용을 학교 현장에서 교사들이 교육을 수행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고순화, 차경옥, 2008: 77). 마지막으로 교육의 대상이 선택적이어서 원하는 학생들만이 교육을 받는 교육의 불평등성의 문제가 있었다.

결국 금융교육이 실현될 수 있는 장은 학교일 수밖에 없으며, 이러한 사회적 요구에 발맞춰 학교에서의 금융교육 강화를 위하여 한국교육과정평가원과 금융감독원은 『초·중고 금융교육 표준안』²⁰⁾을 발표하여 금융교육을 강화하기 위한 발판을 마련하였다. 또한 이 표준안을 적용시키기 위하여 2012학년에 각 학교급에 알맞은 교재와 지도서를 개발 보급하였다.

금융교육 표준안에 따른 교재와 지도서는 표준안의 성취기준과 학교급별 수준을 반영하였기 때문에 금융교육의 계열성을 확보할 수 있으며, 내용의 중복에서도 자유로울 수 있다. 또한 학교 현장을 고려하여 교사들이 가르치기 쉽게 지도서를 구성하였다. 무엇보다 표준안이라는 합의에 의해 교육을 진행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리 나라 금융교육의 기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금융교재가 실제로 표준안의 내용을 그대로 담고 있는지, 학교급별로 계열을 유지하고 있는지에 대한 연구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또한 지도서에 있는 내용 그대로 금융교육을 실시하였을 때 효과가 있는지 현장에서의 검증 역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금융교육 표준안에 따른 교재를 실행연구의 과정으로 현장에 적용해봄으로써 초등 교육 현장에서의 효과와 시사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20) 금융교육 표준안은 금융감독원에서 개발을 추진하였으며, 표준안 개발의 연구용역은 학교 교육과정 전문연구기관인 한국교육과정 평가원에 의뢰하였다(금융감독원 보도자료, 2011. 2. 8).

2. 연구의 내용 및 방법

본 연구에서는 초등 금융교육 표준안에 따른 교재 『슬기로운 생활 금융』을 재량활동 시간을 통하여 적용하였다. 그리고 그 결과를 분석, 효과와 시사점을 도출하여 금융 교육을 초등 현장에 실행해 보고자 하는 교사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하였다.

본 연구를 위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첫째, 금융교육 표준안 개발의 배경, 금융교육 표준안의 주요내용을 문헌연구를 통하여 알아보았다.

둘째, 금융교육 표준안 교재를 분석하고 실제 수업에 적용하였다.

셋째, 금융교육 교재를 적용 후 학습일지 작성, 교사의 수업일지, 동료교사의 참관록, 동영상 자료 분석을 통하여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본 연구의 연구방법은 기본적으로 실험연구의 방법을 따랐다. 본 연구에서 실행하고자 하는 교재는 다섯 개 대단원이 17차시로 구성되어 있어, 본 연구도 교재의 내용 그대로 1년 동안 17차시의 수업을 적용하였다.

실험연구의 방법대로라면 17차시 프로그램의 반복, 개선된 실행을 통하여 수정된 문제점을 찾아서 재적용하여 최종대안으로 제시하면 더 좋을 것이다. 그러나 이번 연구는 연구자가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실행하는 것이 아니라, 금융감독원에서 개발한 금융교육 표준안 교재를 현장에 적용하고 검증하여 효과성과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이다. 따라서 연구자가 프로그램을 반성하고 새로운 내용을 구성하여 2차 적용을 하는 것은 교재의 검증차원에서 볼 때 연구의 취지에 적합하지 않다. 이에 본 연구는 연구자가 연구자 본인의 학습에 『슬기로운 생활 금융』 교재의 내용을 1차와 2차로 나누어 적용하되, 1차 적용을 한 후 중간점검을 통해 교재 내용을 바꾸지 않는 범위 내에서 1차 연구를 통해 얻은 시사점들을 반영하여 2차에 적용하였다. 그리고 그 결과를 프로그램의 효과, 목표 특성, 교수-학습 방법 및 활동, 학습 자료 등의 관점으로 분석하고 그 과정에서 효과와 시사점을 도출하여 최종 제언하였다.

II. 금융교육 표준안의 내용 및 교재 분석

1. 초등 금융교육 표준안의 성취기준 내용

학교 교육과정 내용은 전통적으로 지식, 기능, 가치·태도의 세 부문으로 구성되는데, 금융교육 또한 같다. 이에 따른 금융교육의 성취기준도 기본 지식(개념, 원리, 사실)을 범위와 계열에 따라 나누어 성취기준을 제시하였다. 금융교육 표준안 초등학교 수준의 성취기준은 앞의 금융 교육 표준안의 내용 영역과 같이 5개의 대영역과 13개의 중영역으로 구분되었다.

<표 II-1> 초등 금융교육 표준안의 성취수준의 내용

대영역	중영역	성취 기준 내용
I. 금융과의사결정	합리적 금융생활	상품 거래에는 돈이 필요함을 이해한다.

		돈을 사용할 때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의사결정을 한다. 돈과 관련된 의사결정 사례를 말할 수 있다.
	개인 재무관리	삶을 살아가는데 있어 돈 관리가 중요함을 인식한다.
	금융 서비스와 보호	대표적 금융회사들이 하는 일을 이해한다.
II. 수입과 지출관리	예산	계획을 세워 돈을 사용해야 하는 이유를 알고, 실제로 계획을 세워본다. 용돈기입장 쓰기의 의의를 알고 이를 실제로 작성한다.
	수입	소득의 종류를 구분하여 이해한다.
	지출	구매 의사결정에서 물건에 대한 정보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함을 이해한다. 다양한 지불 수단이 가진 장점과 단점을 비교할 수 있다.
III. 저축과 투자	저축	저축을 하는 이유를 설명할 수 있다. 다양한 형태의 저축방법이 있음을 이해한다. 은행을 방문하여 저축 계좌를 만들고, 저축하는 습관이 중요함을 인식한다.
	투자	돈의 가치를 시간과 관련하여 설명할 수 있다. 투자의 개념과 필요성을 이해한다.
IV. 신용과 부채관리	신용관리와 대출	신용의 의미를 파악하고 신용사용의 장단점을 이해한다.
	부채 관리	부채의 개념을 이해한다.
V. 위험 관리와 보험	위험관리	생활 속에서 겪을 수 있는 위험의 사례를 제시하고, 이에 대한 대비의 필요성을 이해한다.
	보험	보험 가입을 통해 얻을 수 있는 효과를 이해한다.

2. 『슬기로운 생활 금융』 교재 분석

교재 분석은 크게 학습목표분석과 학습목표의 성취기준 반영분석의 두 가지 이루어졌다. 학습목표분석은 <표II-2>와 같이 차시주제에 따른 학습목표를 지식, 기능, 가치태도의 3관점으로 나누어 보았다. 교재 분석을 통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을 발견할 수 있었다.

<표 II-2> 금융교육 표준안 학습목표 분류

차시주제	학습목표	지식	기능	가치태도
I. 돈 관리는 이렇게				
1. 소중한고 편리한 돈	돈의 소중함과 편리함을 이해할 수 있다.	○		
	돈의 발달과정을 설명할 수 있다.	○		
2. 현명한 선택	현명하게 돈을 쓰기 위한 선택의 방법을 이해할 수 있다.	○		
3. 계획적인 소비생활	계획을 세워 돈을 사용해야 하는 까닭을 알 수 있다.	○		
	알맞은 지출 계획을 세울 수 있다.		○	
4. 금융회사가 하는 일	금융의 뜻과 금융회사가 하는 일을 알 수 있다.	○		
II. 현명하게 돈 쓰기				
1. 소득을 얻는 여러 방법	소득은 얻는 방법과 소득의 종류를 알 수 있다.	○		
2. 용돈 관리는 용돈 기입장으로	용돈 기입장을 사용하여 용돈을 관리할 수 있다.		○	
3. 정보도 돈이다.	경제 생활에서 정보의 중요성을 알 수 있다.	○		
	정보의 이용방법을 이해할 수 있다.	○		
4. 물건값을 치르는 방법	물건 값을 치르는 방법을 알고 장단점을 비교할 수 있다.	○	○	
	물건값을 치르는 새로운 방법을 알 수 있다.	○		

III. 현명하게 돈 모으기			
1. 저축을 해야 하는 이유	저축의 좋은 점과 저축을 하는 이유를 알 수 있다.	○	
	저축을 하는 다양한 방법을 알 수 있다.	○	
2. 나의 예금 통장 만들기	저축 계획을 세우고, 저축하는 습관을 기를 수 있다.		○ ○
	은행을 방문하여 예금 통장을 만들고 입출금하는 방법을 알 수 있다.	○	○
3. 돈의 가치도 변해요	시간이 지나면서 돈의 가치가 달라지는 것을 알 수 있다.	○	
4. 돈을 불리는 방법	돈 불리기가 필요한 까닭과 돈을 불리는 방법을 알 수 있다.	○	
	대표적인 금융상품과 현명한 투자 방법을 알 수 있다.	○	
IV. 신용 관리는 이렇게			
1. 편리한 신용거래	신용의 의미를 파악하고 신용거래의 좋은 점을 이해할 수 있다.	○	
	신용 거래를 할 때 주의해야 함을 알 수 있다.	○	
2. 안전한 금융생활	개인 정보를 소중하게 다루고 전화 금융사기를 예방할 수 있다.		○ ○
	안전한 금융생활을 위해 금융감독원이 하는 일을 알 수 있다.	○	
3. 신용을 관리하는 방법	부채의 의미를 알고 신용과의 관계를 이해할 수 있다.	○	
	신용 관리의 필요성과 신용 관리를 하는 방법을 알 수 있다.	○	
V. 미래의 위험에 대비하기			
1. 나에게도 이런 위험이	생활 속에서 겪을 수 있는 위험의 사례를 제시할 수 있다.		○
	위험 대비의 필요성을 알 수 있다.	○	
2. 위험에 대비하는 방법	보험의 종류와 보험에 가입하면 어떤 점이 좋은 지 알 수 있다.	○	
	보험에 가입할 때 주의할 점을 알 수 있다.	○	
합 계		24	6 2

학습목표의 성취기준 반영 분석은 <표 II-3>과 같이 차시주제에 따른 성취기준을 교재의 차시 학습목표가 어떻게 반영하고 있는지를 분석하였으며, 반영여부는 전체 반영과 부분반영, 반영하지 않음 세 가지로 분류하였다.

<표 II-3> 학습목표의 성취기준 반영여부 (◎:반영, ○:부분반영, ×:반영하지 않음)

차시주제	성취기준	학습목표	반영 여부
I. 돈 관리는 이렇게			
1. 소중하고 편리한 돈	상품거래에 돈이 필요함을 이해한다.	돈의 소중함과 편리함을 이해할 수 있다.	◎
		돈의 발달과정을 설명할 수 있다.	○
2. 현명한 선택	돈을 사용할 때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의사결정을 한다.	현명하게 돈을 쓰기 위한 선택의 방법을 이해할 수 있다.	○
	돈과 관련된 의사결정 사례를 말할 수 있다.		
3. 계획적인 소비생활	살을 살아가는데 있어 돈 관리가 중요함을 인식한다.	계획을 세워 돈을 사용해야 하는 까닭을 알 수 있다.	◎
	계획을 세워 돈을 사용해야 하는 이유를 알고, 실제로 계획을 세워본다.	알맞은 지출 계획을 세울 수 있다.	◎
4. 금융회사가 하는 일	대표적 금융회사들이 하는 일을 이해한다.	금융의 뜻과 금융회사가 하는 일을 알 수 있다.	◎
II. 현명하게 돈 쓰기			
5. 소득을 얻는 방법	소득의 종류를 구분하여 이해한다.	소득을 얻는 방법과 소득의 종류를 알 수 있다.	◎
6. 용돈 관리는 용돈 기입장으로	용돈기입장 쓰기의 의의를 알고 이를 실제로 작성한다.	용돈 기입장을 사용하여 용돈을 관리할 수 있다.	○

7. 정보도 돈이다!	구매 의사결정에서 물건에 대한 정보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함을 이해한다.	경제생활에서 정보의 중요성을 알 수 있다.	◎
		정보의 이용 방법을 이해할 수 있다.	◎
8. 물건값을 치루는 방법	다양한 지불 수단이 가진 장점과 단점을 비교할 수 있다.	물건 값을 치르는 방법을 알고 장단점을 비교할 수 있다.	◎
		물건 값을 치르는 새로운 방법을 알 수 있다.	○
III. 현명하게 돈 모으기			
9. 저축을 하는 이유	저축을 하는 이유를 설명할 수 있다. 다양한 형태의 저축 방법이 있음을 이해한다.	저축의 좋은 점과 저축을 하는 이유를 알 수 있다.	◎
		저축을 하는 다양한 방법을 알 수 있다.	◎
10. 나의 예금통장 만들기	은행을 방문하여 저축 계좌를 만들고, 저축하는 습관이 중요함을 인식한다.	저축 계획을 세우고, 저축하는 습관을 기를 수 있다.	◎
		은행을 방문하여 예금통장을 만들고 입출금하는 방법을 알 수 있다.	◎
11. 돈의 가치도 변해요	돈의 가치를 시간과 관련하여 설명할 수 있다.	시간이 지나면서 돈의 가치가 달라지는 것을 알 수 있다.	◎
12. 돈을 불리는 방법	투자의 개념과 필요성을 이해한다.	돈 불리기가 필요한 까닭과 돈을 불리는 방법을 알 수 있다.	○
		대표적인 금융상품과 현명한 투자 방법을 알 수 있다.	×
IV. 신용 관리는 이렇게!			
13. 편리한 신용 거래	신용의 의미를 파악하고 신용사용의 장단점을 이해한다.	신용의 의미를 파악하고 신용 거래의 좋은 점을 이해할 수 있다.	◎
		신용 거래를 할 때 주의해야 함을 알 수 있다.	◎
14. 안전한 금융 생활		개인 정보를 소중하게 다루고 전화 금융 사기를 예방할 수 있다.	×
		안전한 금융 생활을 위해 금융 감독원이 하는 일을 알 수 있다.	×
15. 신용을 관리하는 방법	부채의 개념을 이해한다.	부채의 의미를 알고 신용과의 관계를 이해할 수 있다.	○
		신용 관리의 필요성과 신용 관리를 하는 방법을 알 수 있다.	×
V. 미래의 위험에 대비하기			
16. 나에게도 이런 위험이	생활 속에서 겪을 수 있는 위험의 사례를 제시하고, 이에 대한 대비의 필요성을 이해한다.	생활 속에서 겪을 수 있는 위험의 사례를 제시할 수 있다.	◎
		위험 대비의 필요성을 알 수 있다.	◎
17. 위험에 대비하는 방법	보험 가입을 통해 얻을 수 있는 효과를 이해한다.	보험의 종류와 보험에 가입하면 어떤 점이 좋은지 알 수 있다.	○
		보험에 가입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을 알 수 있다.	○

교재 분석을 통하여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발견하였다.

첫째, 수업 목표가 지나치게 지식을 강조하는 양상이 나타났다.

초등학생 단계는 기초적인 금융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지식을 목표로 하는 것이 좋지만, 초등학생의 발달 특성 상 활동위주의 재미있는 수업이 필요하다는 점, 초등학교시기에 금융에 대한 올바른 태도를 가져야 그 올바른 태도가 성인 시기까지 이어진다는 점을 고려할 때 기능 및 가치 태도에 대한 부분의 비중이 많이 부족함을 알 수 있다.

둘째, 차시 학습목표가 표준안의 모든 성취기준을 반영하지 못하였다.

『슬기로운 생활 금융』 교재는 금융교육 표준안의 성취기준에 따라 개발되었기 때문에 성취기준을 온전히 반영하여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전체 19개의 성취기준 중 5개의 기준이 학습목표에 부분 반영이 되었다. 성취기준을 학습목표가 온전히 반영하지 못한다면 금융수업이 효과적으로 진행되었다 하더라도

도 표준안의 성취기준을 만족할 수 없을 수 있다.

셋째, 차시 학습목표가 성취기준과 관련이 없거나, 초등 성취수준을 넘어서는 경우도 있었다.

성취기준과 관련이 없거나 부분 반영된 학습목표의 대부분은 초등의 성취수준을 넘어서는 경우였다. 특히 투자와 관련된 금융상품, 현명한 투자방법, 보험과 관련된 보험의 종류와 보험 가입의 주의점과 같은 경우는 내용자체가 초등수준을 넘어서는 주제였다. 또한 국가 사회적 문제의 심각성에 의해 채택되었으리라 추측되는 개인정보와 같은 내용도 포함되어 있었다. 하지만 이 경우도 꼭 학습이 필요한 내용이라면 성취기준에 포함시키는 것이 옳은 방법이라 생각된다.

III. 연구의 실행

1. 수업의 적용

수업은 1차 적용에 2단원 8차시 수업을 2차 적용에는 3단원 9차시 수업을 적용하였다. 수업이 끝난 후 여러 자료를 분석하여 각각 차시별 수업에서 발견된 시사점을 정리하였다. 1차 적용이 끝난 후 각각의 차시별로 발견된 시사점을 종합 정리하였으며, 2차 적용을 위하여 두 가지를 제언하였다. 2차 적용이 끝난 후에는 1차 적용과 비교하여 차별성이 보이는 유의미한 시사점을 정리하였다.

<표 III-1> 1,2차 수업 적용결과와 시사점 및 2차 적용을 위한 제언

1차 적용 후 시사점	2차 적용을 위한 제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생들이 수업 및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 시사성 있는 자료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 - 교사의 발문이 사실 확인적이고 발문에 대한 답이 교재에 제시되어 있는 경우가 많았다. - 수업모형이나 자료제시 형태가 획일적이며, 다양한 체험 활동과 수업 기법 필요하다. - 단위수업시간을 초과하는 사례가 발생하였고, 이것은 학생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 - 초등학생 단계에서 이해하기 어려운 금융교육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 수업의 과정에서 가치 태도적인 내용이 자연스럽게 발현이 되었다. - 가정과 연계한 금융교육이 필요하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업의 효과성을 검증하기 위해 차시마다 평가지를 제작하여야 한다. - 학생의 활동시간에 시간통제를 하여 시간초과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2차 적용 후 시사점

2. 적용 결과 분석

수업을 모두 마친 후 매 차시마다 나타난 시사점들을 크게 프로그램의 효과, 목표 특성, 교수-학습 방

법 및 활동, 학습 자료 등 4가지 관점으로 분석해 보았다.

1) 프로그램의 효과

본 연구에서 프로그램의 효과를 분석하는 관점은 크게 두 가지로 설정하였다. 하나는 결과의 양상을 확인할 수 있는 수업목표의 도달 정도이고 다른 하나는 동기의 양상을 확인할 수 있는 학습자의 흥미이다.

(1) 학습목표의 도달

수업목표의 도달여부는 수업 목표의 유형에 따라 지식, 기능, 가치태도 세 가지로 구분하여 알아보았다. 1차 적용에서 지식영역은 교재의 활동지와 퀴즈문항으로, 그리고 1차 적용이 모두 진행 된 후 실시된 총괄 평가로 분석하였다. 2차 적용은 매 차시 평가 문항을 제작하여 형성평가지를 분석하였다. 기능과 가치태도는 여기에 학습자의 학습일지, 교사의 관찰을 더하여 검증하였다.

① 지식

지식영역의 효과성을 알아보기 위해 매 차시 교재에 제시되어 있는 퀴즈와 골든벨 문제를 채점하였다. 퀴즈와 골든벨 문제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수업상황에서 답을 학생들 스스로 바로 채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매 차시 학생들의 점수를 기록하고 점수의 수준을 상중하로 나누었다. 상중하의 기준은 교재에 제시되어 있는 수준으로, 매 차시마다 문항의 숫자마다 다르지만 보통 7문제의 경우 6·7점은 상, 4·5점은 중, 0·3점은 하로 평가 하였다.

2차 적용부터는 연구자가 차시별 평가문항을 작성하여 매 차시 수업이 끝난 후에 평가를 실시하였다. 평가 문항은 보통 8·10문제로 구성되었는데, 1차 적용 때와 마찬가지로 상중하로 구분하였다. 상중하의 기준은 교재의 퀴즈와 골든벨 문제 채점 기준과 마찬가지로 8문제의 경우 7·8점은 상, 5·6점은 중, 0·4점은 하로 평가하였다.

총괄평가의 경우 1차 적용의 차시별 평가를 보완하는 측면에서 실시하였고 2차 적용에는 실시하지 않았다. 평가의 결과는 다음 표<III-2>와 같다.

<표 III-2> 금융교육 차시별 평가 결과(단위:명(%))

수업차시	차시별 평가 결과			총괄평가	수업차시	차시별 평가 결과				
	상	중	하			상	중	하		
1차 적용	1차시	20(72%)	4(14%)	4(14%)	76.5%	2차 적용	9차시	22(79%)	4(14%)	2(7%)
	2차시	21(75%)	5(18%)	2(7%)	75.6%		10차시	27(96%)	0(0%)	1(4%)
	3차시	23(82%)	2(7%)	3(11%)	78.9%		11차시	21(75%)	4(14%)	3(11%)
	4차시	17(63%)	4(15%)	6(22%)	54.9%		12차시	19(68%)	1(4%)	8(28%)
	5차시	22(79%)	4(14%)	2(7%)	82.3%		13차시	25(89%)	3(11%)	0(0%)
	6차시	21(75%)	4(14%)	3(11%)	71.3%		14차시	27(96%)	1(4%)	0(0%)
	7차시	25(89%)	1(4%)	2(7%)	75.3%		15차시	21(73%)	5(17%)	3(10%)
	8차시	18(64%)	3(11%)	7(25%)	66.3%		16차시	22(69%)	5(17%)	2(7%)
평균	75.3%	13.5%	11.2%	72.6%	평균	79.3%	10.5	10.2%		

교육 현장에서 평가기준을 상중하로 나누었을 때 '중'은 '학생이 해당 학년의 충실한 교수·학습 과정을 통해서 성취해야할 것이라고 기대되는 수준'으로 보고 있다. 즉 '중' 수준에 도달한 학생은 원칙적으로 성취

하기를 기대하는 내용과 활동을 보통수준으로 성취했다고 할 수 있다(류재택, 강운선, 2000: 19). 또한 우리나라의 '절대 평가 기준' 연구에서는 대략 80%정도의 학생이 성취한 수준을 '성취수준'으로 설정한다(김진숙, 1999: 356).

이러한 관점에서 보았을 때 차시별 평가 상과 중이 차지하는 비율이 80%가 되는가가 기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1차 적용의 차시별 평가와 2차 적용의 차시별 평가 모두 평균이 80%를 초과하기 때문에 금융교육을 통한 지식영역의 수업목표를 달성하였다고 볼 수 있다.

총괄평가의 경우 평균은 72.6%를 기록하였다. 총괄평가의 시점이 1차 적용이 모두 끝난 후에 실시되었고 차시별 평가와 같이 상, 중, 하로 구분하지 않고 문항의 정답 비율로 나타내었기 때문에 차시별 평가와 같은 기준으로 성취수준을 적용할 수 없다. 그러므로 72.6%를 평균으로 차시의 성취수준을 비교할 수 있는 상대적 기준으로 활용하였다.

이러한 기준을 적용하였을 때 1차 적용의 4차시와 8차시의 수업은 차시별 평가 기준으로 보았을 때 수업목표에 도달하였다고 보기 힘들고, 총괄평가 점수도 다른 차시에 비해 현저히 낮다. 2차 적용의 4차시와 9차시 역시 수업목표에 도달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원인을 분석하기 위해서 초, 중, 고등학교별 금융교육의 성취수준과 비교하였다. 그 결과 차시별 평가나 총괄평가가 낮은 차시인 4차시, 12차시, 17차시의 경우 성취수준이 초·중·고등학교를 넘어서는 보험회사, 주식회사, 증권회사, 상호저축 은행, 신용카드 회사, 협동조합 등의 개념이나 저축과 투자의 장단점과 차이점, 주식과 펀드의 개념과 다른 점, 바람직한 투자 방법, 여러 가지 보험의 종류 개념 등 어려운 내용을 담고 있었다.

특히 17차시의 수업의 경우 중등을 넘어 고등 단계의 개념도 포함하고 있었다.

<표 III-3> 17차시와 관련된 금융교육 표준안 성취기준

		17차시 위험에 대비하는 방법	
대영역	중영역	성취기준	
위험 관리와 보험	은퇴설계	초등	보험 가입을 통해 얻을 수 있는 효과를 이해한다.
		중등	위험 관리 전략으로서의 보험의 기능을 설명할 수 있다.
			생명 보험과 손해 보험의 개념을 이해하고, 종류를 열거할 수 있다.
		고등	보험의 기본 원리를 이해한다.
다양한 보험의 형태를 이해한다.			
			사회 보험의 개념과 사회적 역할을 설명할 수 있다.

- 이런 수업에는 어려운 개념이 많이 포함되어 있었다. 그 가운데 여러 가지 보험의 종류에 대해서 배웠는데, 그런 내용들보다는 보험의 기능이나 보험의 중요성 정도를 아는 선에서 수업을 마치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했다. 수업을 하는 내내 학생들이 보험의 여러 종류와 개념들을 잘 이해하기 못했고, 심지어는 그러한 보험에 들기 위해서 보험료를 지불한다는 사실조차 모르는 학생들도 있었다. 민영보험, 사회보험, 생명보험, 손해보험과 같은 내용들은 중등이상에서 다루어 지는 것이 더 적합하다고 생각된다. 민영보험과 사회보험의 다양한 종류에 대한 발문에도 쉽게 답을 못하고 단순히 교재에 있는 내용만을 읽을 뿐이었다. 교사의 발문에 기계적으로 답은 하지만 정확한 내용을 솔직히 잘 모르겠으면 손을 들어달라는 교사의 질문에 다수의 학생들이 손을 들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민영보험과 사회보험의 차이와 필요성에 대하여 부연 설명을 해 주었다. (17차시 적용 후 교사의 수업일지 중에서)

한편 전체 17개 차시의 수업 중 4개 차시를 제외한 전 차시에서는 지식영역의 목표 수준에 도달하였다

고 볼 수 있다.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우선 강의식 수업이 지식 영역의 수업목표 달성에 있어 가장 큰 요인이라고 생각된다. 지식을 습득하는데 강의식 수업은 가장 효과가 높은 수업 방법 중 하나이다. 학생들이 금융이라는 소재에 대해 흥미를 가지고 적극적인 자세로 수업을 하면서 발표와 활동도 많이 한 점도 긍정적으로 작용하였다. 이러한 점은 동료교사들도 지적해 주었다.

- 교사의 질문에 학생들이 발표를 적극적으로 하고 수업에도 열심히 참여하는 모습이 인상적입니다. 강의식 수업이 꼭 나쁘다고는 할 수 없어요. 수업목표에 잘 도달한다면 그것이 강의식이든, 의사결정이든, 탐구학습이든 상관이 없다고 봅니다. 오늘 수업 목표도 금융지식에 관한 내용이라 강의식 수업이 적절하다고 생각돼요. 교재에 있는 내용을 배우는 데에는 강의식 수업이 효과가 좋다고 봅니다. (4차시 수업 적용 후 동료교사의 수업 소감문 중에서)

② 기능

보통 사회과에서 성취기준으로서의 기능은 문제해결 능력이나 의사 소통 및 참여 능력을 말한다. 금융 교육은 사회과의 일반적 기능 외에 금융 능력 향상을 위한 금융기능이 첨가 된다. 이번 금융 수업을 통해 학습되는 금융기능은 지출계획 세우기, 용돈 관리하기, 저축계획 세우기, 통장 만들기, 전화 금융 사기 예방하기 등이 있다. 이러한 금융 기능 중에서 '계획하기' 단계의 기능은 수업을 통하여 학습하도록 되어 있고, 학생들도 '계획하기'에 필요한 개념들을 학습하고 지출계획이나 저축계획 등을 세웠다. 하지만 '용돈 관리하기'나 '통장 만들기'와 같은 실제적으로 체험을 통해 획득되어지는 기능은 수업 시간을 통해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러한 기능이 획득되었다 하기 힘들다.

금융 교재의 수업 목표에는 "선택의 방법을 이해해할 수 있다.", "정보의 이용 방법을 알 수 있다." 등 " ~하는 방법을 알 수 있다."와 같은 수업 목표를 다수 발견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수업은 기능이 목표가 아닌 지식이 목표가 되는 수업이기 때문에 실제로 해 볼 수 없어 기능을 습득할 수 없게 된다. 그러므로 금융수업을 통해 기능영역의 수업목표는 달성되었다고 보기 힘들다. 많은 학생들도 이 점을 아쉬워 하였다.

- 이번 시간에 용돈 기입장을 만들 수 있다고 했는데 용돈 기입장을 만들고 싶었는데 그 점이 아쉬웠다. (6차시 수업 종료 후 학생의 수업일지 중에서)
- 가격정보 사이트를 직접 찾아보고 싶었는데 그러지 못해 아쉽다. (7차시 수업 종료 후 학생의 수업일지 중에서)
- <재미있어요!>활동2에서 다른 친구의 예를 보고 용돈 기입장을 작성해 보는 것도 좋지만 학습자들이 자신의 경험을 살려서 직접 용돈기입장을 작성해 보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된다. 학습지의 수입과 지출내역을 제시해 주는 것이 아니라 학습자들 스스로 자신의 수입과 지출 내역을 적어보는 것이 의미있는 활동이라 생각된다. (6차시 수업 적용 후 동료 교사의 수업 참관록 중에서)

③ 가치 태도

가치 태도의 영역의 수업 목표는 전체적으로 2개가 있다. 가치 태도가 학습 목표로 설정된 수업에서는 학생들이 올바른 금융 가치관을 가지게 된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어렸을 때부터 형성된 금융 가치관이 성인시기에도 영향을 끼친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현상으로 생각되며, 이런 면에서 볼 때 초등 금융 수업에서 지식이해 뿐만 아니라 가치 태도의 면을 강조해야 할 것이다.

- 용돈을 받아서 그냥 썼는데 나도 저축 계획을 세우고 통장에 저금을 해야 겠다. 지금까지 용돈을 그냥 썼던 것이 후회 된다. 앞으로 돈 관리도 잘하고 통장관리도 잘해서 돈을 잘 써야 겠다.

(10차시 수업 종료 후 학생의 수업일지 중에서)

금융 수업에서 금융의 가치 태도 영역의 학습 목표가 2개 이고 나머지는 모두 지식과 기능 영역이다. 금융수업의 목표가 결국 금융에 대한 올바른 태도를 형성한다는 점에서 지식으로 편중된 수업의 목표는 고려되어야 할 사항들이다. 하지만 금융지식의 습득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가치와 태도를 형성한다는 점에서 수업목표의 지식 영역 편중은 부정적인 것만은 아니다. 실제로 가치와 태도로 수업목표가 설정이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은 금융에 대한 가치와 태도를 형성하는 경우가 발생하였다²¹⁾.

- 정보가 경제생활에서 중요한지 몰랐는데 오늘 정보가 경제생활에서 중요하다는 것을 배워서 좋았다. 돈을 쓸 때에는 꼭 정보를 찾아야 겠다.

(7차시 수업 종료 후 학생의 수업일지 중에서)

(2) 학습자의 흥미

재미있고 흥미로운 수업이 꼭 좋은 수업이라고 볼 수 없지만 좋은 수업의 조건 중 학습자의 흥미 유발은 꼭 필요하다. 초등학생의 발달 단계 상 흥미가 유발되어야 내재적인 학습의 동기가 유발되고, 이러한 학습의 동기 유발은 좋은 수업의 필수 조건이기 때문이다.

금융수업에 임하는 학습자들의 태도는 적극적이고 학습에 흥미를 보였다. 새로운 것을 배우는 기대감과 금융이라는 소재의 신선함으로 학생들의 수업 집중도가 높았다. 비록 책자로 제공하지 못하고 매 차시 복사하여 사용하기는 했지만 금융교육 교재에 그림이나 삽화가 많이 있어 보기에 편했으며, 만화그리기 활동이나 안내판 만들기 등 학생들이 재미있어 하는 활동이 많이 제시되어 있어 학생들이 흥미를 가지고 수업에 참여할 수 있었다. 학생들은 교재에 제시되어 있는 활동을 열심히 하고 발표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정규수업 40분을 초과하는 경우도 많았다.

- 교재가 미처 준비되지 못해 복사한 자료를 사용하는 것이 조금 안타까웠지만 학생들이 수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수업이 활기차게 진행이 되었던 것이 좋습니다. 만화그리기 활동이나 화폐 상상하여 발표하기 등 학생들이 흥미를 가질 만한 활동이 있어 더욱 학생들의 참여도가 높았다고 생각합니다.

(1차시 수업 적용 후 동료교사의 참관록 중에서)

2) 목표 특성

수업의 목표가 지나치게 지식으로 편중되었으며, 교사용 지도서의 교사의 발문 역시 사실적 지식을 묻는 발문으로 치우쳐 있었다. 그러다 보니 수업의 양상이 대부분 교사의 발문과 학생의 답으로 전개가 되었다. 또한 이러한 사실적 지식을 묻는 발문의 답이 대부분 교재에 제시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 금융교육을 통해서 학생들의 문제해결능력이나 사고력을 향상시키기는 쉽지 않았다. 또한 처음에 흥미로웠던 수업이

21) 오수진(2012)은 금융지식이 금융행동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였는데, 금융지식은 금융태도에 영향을 미치고, 금융태도를 매개하여 금융행동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더 효과적인 결과를 위해서는 지식전달 중심의 교육보다는 금융에 대한 태도를 변화시키는 것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시간이 갈수록 흥미를 잃었는데 발문의 사실적 지식 부분의 과다가 원인이라 볼 수 있다.

기초적인 지식이 없이 금융의 기능이나 가치관을 형성하기 어렵기 때문에 초등단계에서는 기초적인 금융지식을 학습할 필요가 있다. 중등이나 고등단계에는 더욱 어려운 금융개념이나 지식들을 학습해야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가치관이라는 것은 쉽게 변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초등 단계에 잘못된 가치관이 형성될 경우 그것을 바꾸기란 쉽지 않다. 그러므로 초등단계에서부터 올바른 금융가치관 형성을 위한 방향으로 금융교육의 목표가 설정되어야 한다.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금융지식의 습득이 올바른 가치관 형성에 기여를 했지만 효과적인 방법은 아니었다. 따라서 금융 가치관을 향상하는 학습목표의 진술이 강화되어야 하며, 그에 따라 교재나 지도서의 발문과 활동도 바뀌어야 할 것이다.

또한 교사에 의한 목표의 재조정도 가능할 것이다. 교육 현장에서도 교육과정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면 얼마든지 수업목표의 재설정이 가능하다. 금융교육도 교사가 표준안에 따른 성취기준과 그 수준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면 교사에 의해 얼마든지 목표의 재설정이 가능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교사의 금융교육에 대한 전문성 확보가 우선 담보되어야 하기 때문에 금융교육 교육과정에 대한 교사 연수 및 연구가 필요하겠다.

3) 교수-학습 방법 및 활동

(1) 수업 목표에 관계없이 획일화 된 수업모형

금융교육 교재는 사회교과와 마찬가지로 기본적으로 문제해결 수업모형을 따르고 있다. 문제해결 수업모형은 경제나 금융수업에 적합한 수업모형이다. 문제해결 수업모형의 첫 단계인 문제 사태 제시하는 사람들이 실제 겪게 되는 여러 가지 경제적 문제 상황에 적절하게 대입될 수 있으며,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과정으로 수업이 전개되기 때문에 학생의 동기유발에도 효과적이다. 하지만 모든 수업이 문제해결 수업모형을 따를 필요는 없다. 수업의 목표와 획득되어질 핵심 개념에 따라 수업의 모형을 달라져야 한다. 또 발문과 답변 형식의 강의식 수업이 수업에 적절한지도 따져보아야 한다. 금융 수업은 전체적으로 동기유발 단계에서 문제 사태를 제시하고 문제해결 수업모형의 형식을 따르기는 하지만 그 이후의 수업은 교사의 발문과 학생의 답변으로 이루어진 강의식 수업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문제해결 수업모형과 강의식 수업이 잘못된 것이라고 단정지어 말할 수는 없지만 모든 수업이 획일화되어 진행될 때 수업의 효과는 떨어질 수밖에 없다.

- 수업이 <재미있어요!> 활동 학습지를 제외하면 대부분 교사와 학생의 발문과 답으로 이루어져 있다. 강의식 수업이 무조건 나쁘다고는 볼 수 없지만 사회과에서 지향하고 있는 수업의 형태는 아니다. 그리고 이번 수업의 경우는 학습을 통해 얻어야 할 주요 개념이 '선택'인 만큼 의사결정 수업모형을 적용하여 학생들이 활발하게 활동하는 것이 더 좋을 듯하다.

(2차시 적용 후 동료교사의 수업참관문 중에서)

(2) 학생들이 체험할 수 있는 활동의 부족

학교 경제교육의 가장 큰 문제점은 개념과 지식 위주의 수업 형태이다. 경제교육의 하위 개념인 금융교육도 마찬가지다. 이러한 점을 극복하기 위하여 최근의 경제교육이나 금융교육 연구나 프로그램에서는 교사 중심의 주입식 수업에서 벗어나 학생들의 다양한 체험과 활동을 위주로 하고 있다. 금융 교재에도 만화

로 나타내기, 4행시 짓기 등의 활동이 있지만 대체적으로 체험이나 활동이 식상하고 부족한 편이다. 물론 체험이나 다양한 활동이 없다 하더라도 수업목표를 달성하는 데 상관없다면 문제가 될 것은 없겠다. 하지만 초등 교육현장에서는 발달단계의 특성상 학생의 활동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수업의 목표가 지식적인 측면이 강하다 하더라도 체험이나 활동을 통하여 목표에 도달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 오늘은 정보의 중요성과 정보를 얻는 방법 등을 배웠는데 이런 정보들은 인터넷과 신문, 잡지, 텔레비전, 주변사람들을 통해 얻을 수 있다. 그런데 직접 정보를 얻어 보지 않아서 아쉬웠다.(7차시 수업 종료 후 학생의 수업일지 중에서)

또한 금융교육은 실제로 체험할 수 있는 활동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지도서와 교재는 학생들이 체험하기보다는 기능을 설명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다. 물론 표준안에 따른 교재이다 보니, '별다른 교재 연구 없이, 지도서만 가지고 손쉽게 수업할 수 있는²²⁾'이라는 점에서 어려운 활동을 줄이고 쉽게 수업할 수 있도록 지도서를 구성했으리라 생각한다. 하지만 학생의 학습 동기와 흥미의 제고를 위해서는 더욱 다양한 활동이 필요하겠다.

(3) 다양한 수업 방법과 기법의 필요

금융교육지도서는 문답식 수업이 주를 이루다 보니 금융과 관련된 다양한 활동과 더불어 목표에 알맞은 다양한 수업기법이 활용되고 있지 못한 편이다. 특히 브레인 라이팅이나 자유 연상 기법과 같은 창의적 기법의 활용에 대해서 많은 동료 교사들이 지적하였다. 학생들이 겪게 되는 금융 상황들은 변수가 많고 다양하다. 그러한 다양한 금융 상황에 알맞게 대처하기 위해서는 꼭 정해진 규칙대로 행동할 수 없으며, 상황에 맞게 유연하게 대처해야 한다.

- '좋은 직업이란 어떤 직업인가'의 발문에 학생들이 여러 가지 답을 하였는데 이 부분은 여러 가지 자유 연상 기법을 사용하는 것이 학생들의 학습효과에 더욱 효과적일 것이라고 생각했다. (5차시 수업 적용 후 교사의 수업일지 중에서)
- 여전히 교사 중심의 설명식, 응답식 수업이 학생들의 창의성을 발현하는 데 한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학생들이 재미 있고 활동적이라고 해서 창의적이라고 보기에는 어렵다. 학생들의 창의력을 이끌어 낼 수 있는 여러 기법을 사용하는 것이 좋을 듯 하다. (5차시 수업 종료 후 교사의 수업일지중에서)

또한 사회과 수업에서 전통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인 조사발표 학습도 금융수업에서 사용할 수 있는 수업 기법 중 하나이다. 금융은 시사적인 자료가 많이 있다 보니 이러한 시사적인 자료를 직접 조사하는 것이 학습자의 흥미를 고취시키고 자기 주도적인 학습 능력을 향상 시킬 것이다.

금융 수업에서 어려운 개념을 많이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시뮬레이션이나 게임과 같은 기법을 활용하는 것도 좋을 것이다. 어려운 개념을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직접 체험하거나 학생의 흥미를 유발할 만한 수업 기법을 활용해야 한다. 시뮬레이션이나 게임은 경제교육에서도 많이 활용하는 기법으로 금융 수업에 활용도 역시 높을 것이다.

22) 「슬기로운 생활 금융」 교사용 지도서 18p

4) 교수 학습 자료

금융 수업에서 교수학습 자료의 특징은 재미있고 흥미있는 내용으로 구성되어있지만 제시된 형태가 너무 일률적이고 정형화되었다. 교재의 동기유발 자료는 주로 당혹스러운 문제 사태를 만화로 제시하였다. 만화는 초등학교 단계에서 동기유발 자료로 사용하기에는 좋은 자료이다. 만화를 보면 학생들은 주의집중을 하게 되며, 등장인물과 동일시되어 상황을 파악하게 되기 때문이다. 또한 흥미가 유발되어 수업에 자료가 수업에 효과적으로 사용되었다. 하지만 문제는 모든 차시에서 동기유발 자료로 만화가 사용되고 있다는 점이다. 처음 만화로 동기유발 상황을 접하게 된 학생들은 흥미를 느꼈지만 차시가 거듭될수록 점점 흥미를 잃었다. 동기유발 자료와 마찬가지로 수업에 사용되는 거의 모든 자료는 교재에 제시되어 있는 그림과 사진들로 이러한 자료의 효과 역시 차시가 거듭될 수록 효과가 반감되었다.

- 동기유발 활동의 만화자료로는 이전 더 이상 동기가 유발되지 않는 듯 하다. 벌써 수업이 6차시를 지나가다 보니 좀 더 새로운 동기유발 자료가 필요할 것 같다. 매번 같은 형태의 만화를 보다 보니 학생들이 식상함을 느끼는 것 같다. 게다가 <재미있어> 활동을 통해 직접 만화를 그리는 활동을 두 차례나 실시하다 보니 학생들이 더 이상 만화에 대한 선함을 못 느끼는 것 같다.

(6차시 수업 적용 후 교사의 수업일지 중에서)

이런 면에서 볼 때 흥미 유발을 위한 자료의 형태의 변화로 실물자료를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통장만들기 활동에 사용되는 실제 통장이나, 여러 가지 보험약관, 사회보험 제도 자료로서 의료비 영수증과 같은 실물자료는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자료들이다. 또한 이러한 자료들은 학생들이 학교에서 배운 금융 지식이 실제에 적용되는 사례를 실감하게 되는 경우라 학습의 효과도 더욱 높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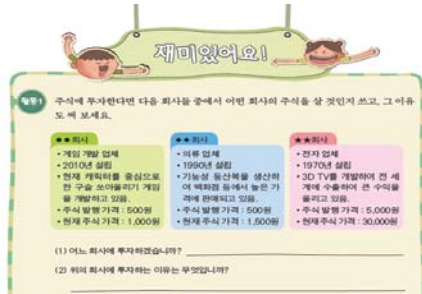
- 사회보험의 가장 대표적인 예가 건강보험인데 의료비 영수증일 직접 가져와서 학생들과 함께 국가에서 부담하는 건강보험료를 직접 확인해보는 것도 좋은 활동일 것 같습니다. (17차시 적용 후 동료 교사의 수업 소감문 중에서)

사회수업에서 시사성있는 자료는 학생들의 흥미를 유발하거나 내재적인 학습 동기를 유발할 수 있는데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 금융은 사회에서 항상 이슈가 되는 소재이기 때문에 금융수업의 상황에서 이러한 자료를 끌어들이기 용이하지만 교재에서는 수업 상황에 맞는 시사성 있는 자료가 부족하였다. 이러한 자료의 시사성의 측면은 금융교재만의 문제만은 아니다. 사회교과에서도 시사성있는 자료의 필요성에 대하여 인식하고 있지만 교과서에 그런 자료를 실을 경우 교과서의 제작 시점부터 시간이 지날수록 자료의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선불리 자료를 교과서에 실을 수는 없다. 금융상황은 하루가 다르게 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자료를 표준안에 따른 교재에 실기란 더욱 쉽지 않다. 결국 필요한 자료를 어느 정도 재구성하는 것은 교사의 몫이 될 수밖에 없다.

- 요즘 연예인이 운영하는 인터넷쇼핑몰에서 사용후기를 조작한 뉴스가 있었는데 이런 자료를 수업에 활용하는 것도 좋은 것 같다. 금융수업을 4시간 보았지만 너무 지도서에 있는 그대로 발문하고 답하고 하는 과정에서 학생들의 흥미가 많이 떨어지는 것 같다. 연예인에 관한 뉴스라면 학생들이 수업에 집중도 하고, 수업하고 연관성도 크기 때문에 수업에 활용하기 좋은 자료라고 생각한다.

(7차시 수업 적용 후 동료 교사의 수업 소감문 중에서)

또한 오개념을 형성하거나 특정 부분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게 할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었다. 교재의 여러 군데에서 이러한 부분들이 나타났는데 예를 들자면 주식에 대한 오개념을 형성할 우려가 있는 활동내용이다.



〈그림III-1〉 재미있어요! 활동 1

“이 활동은 세 개의 회사 중 투자할 회사를 선택하고, 그 이유를 말하는 것으로서 투자 이유가 타당하다면 어느 회사에 투자를 했더라도 정답이 됩니다. 학생들에게 투자 이유를 물음으로써 투자에 대한 관점을 지니도록 지도하면 좋을 것입니다.”

-지도서에 제시된 주의사항-

세 개의 회사의 정보를 보고 어떤 회사의 주식을 살 것인지를 결정하고 그 이유에 대하여 설명하는 활동인데 회사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업종, 설립년도, 현재 회사의 상태와 주식 가격 등이다. 그런데 이러한 정보를 통해 다른 두 회사에 비해 월등하게 좋은 회사를 찾을 수 없기 때문에 학생들 입장에서는 어느 회사를 선택할지 선뜻 결정을 내리지 못했다.

나름대로 회사를 선택하고 그 이유를 쓴 학생들의 답을 보면 객관적인 이유보다는 학생 나름의 주관적인 이유가 많았다. 그 중 몇 개의 답을 보면 다음과 같다.

- 전자제품이라는 것이 잘 팔릴 것 같다.
- 내가 좋아하는 전자이기 때문이다.
- 세계로 수출하니깐 망하지는 않을 것 같아서
- 주식이격이 적당해서 (12차시 적용 후 학생의 수업일지 중에서)

이러한 대답들 중 어느 것을 정답 처리하고 어느 것을 오답 처리하기는 쉽지 않다. 이 점에 대해서는 동료교사도 지적해주었다.

- ...세 개의 회사의 정보가 제한적이다 보니 어느 회사가 좋은 회사다 라고 말하기가 힘들었습니다. 학생들의 답을 허용적으로 받아주시는 선생님의 태도는 좋다고 생각하지만 한편으로 학생들이 오개념을 가지게 되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특히 주식이격에 대한 답을 한 학생들이 있었는데, 주식이격이라는 것을 상품 가격과 같은 개념으로 생각하지 않아야 하는데 자칫 주식이격을 싸고 비싸고의 상품가격의 개념으로 생각할 것 같습니다.
(12차시 수업 적용 후 동료교사의 수업 소감문 중에서)

물론 이 활동을 통해 학생들이 투자에 대한 관점을 가지게 하려는 의도는 좋은 것이지만 활동에 제시된 문항 자체가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정보가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이런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주식의 가

격뿐만 아니라 총 주식수도 제시하여야 이 회사의 가치가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특정부문에 부정적인 인식을 가질 만한 예는 저축과 투자에 관한 내용이었다. 금융 수업의 목표가 투자는 위험이 있으니 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투자에 대한 균형 잡힌 시각을 갖게 해주는 것이다. 하지만 저축의 장점만 언급할 뿐 단점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지 않아 학생들이 저축은 안전하고 투자는 안전하지 않다는 점만 생각하게 하여 자칫 투자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게 될 우려가 있었다.

- 오늘 금융 시간에는 돈을 불리는 방법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돈을 불리는 방법에 대해서는 저축을 할 때 받는 이자와 투자가 있습니다. 은행은 이자가 적지만 안전하고, 투자는 은행 이자보다 이익은 더 많지만 돈을 잃은 위험이 있어서 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12차시 적용 후 학생의 학습일지 중에서)
- 저축과 투자의 장점은 저축은 안전하고 투자는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다. 저축의 단점은 없고 투자의 단점은 돈을 잃을 수 있다는 것이다. 나는 저축을 하겠다. (12차시 적용 후 학생의 학습일지 중에서)

IV. 결론 및 제언

앞에서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금융교육 표준안에 따른 교재 『슬기로운 생활 금융』을 적용한 수업의 장점과 시사점 및 문제점을 발견하였다. 먼저 장점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첫째, 금융교육 표준안에 따른 교재를 활용한 금융 수업은 학생들의 금융 지식 이해를 향상시켰다. 금융 수업이 끝나고 1차 적용에서는 퀴즈와 골든벨 평가지를, 2차 적용에서는 차시별 형성평가 문제를 통하여 학생들의 금융 지식 이해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전체 17개 차시 중 4개 차시를 제외한 나머지 13개 차시에서 전체 80% 이상의 학생이 성취기준을 만족시켰다. 나머지 4차시 중 3차시는 내용수준이 초등수준에 맞지 않는 어려운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으며, 1차시도 초등학생에게 다소 생소한 개념이 포함되어 있었다. 이러한 사항들을 고려했을 때 초등수준에 맞는 금융교육 내용이라면 금융 교재를 통한 수업이 학생들의 금융 지식 이해력을 향상시켰다고 할 수 있다.

둘째, 금융교육 표준안에 따른 교재를 활용한 금융 수업은 학생들의 바람직한 금융 가치관을 형성하였다. 금융수업에서 가치의 수업목표는 두개에 불과하다. 수업 적용 결과 분석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학생들은 두 개의 가치 영역을 포함한 수업에서 바람직한 금융 가치관을 형성하였다. 또한 수업목표와 관계없이 금융에 대한 가치관이 형성되기도 하였다. 이것은 의도하지 않더라도 금융지식의 습득이 금융 가치관 형성으로 연결되었음을 의미하며 강의식 수업이 학생들의 올바른 금융 가치태도 형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다는 것을 의미하겠다.

셋째, 금융 교재는 학생들이 금융 수업에 흥미를 가지고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다. 교재에 제시되어 있는 활동이 학생들이 재미있게 참여할 수 있는 활동들로 구성되어 있어 학생들이 즐겁게 수업에 참여하였다. 이것은 비단 활동의 즐거움 뿐만 아니라 금융이라는 소재가 주는 신선함도 작용한 것으로 보였다. 하지만 차시가 지날수록 재미와 흥미가 떨어지는 현상이 발생하였다.

넷째, 교재의 자료는 학생들의 학습 동기와 적극적인 학습 태도를 유발하였다. 금융교재는 글보다 그림과 삽화가 많이 제시되어 있다. 그림과 삽화가 수업 상황에 맞게 제시되면서 학습 상황에도 도움이 되었다. 각 차시별 활동도 학생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소재들로 구성되어 있어 있었다. 그리고 마지막 수업의 정리시작에 퀴즈와 골든벨 수업 자료도 학생들이 수업에 적극적으로 참여 할 수 있게 한 자료였다.

다음으로 문제점 및 시사점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첫째, 금융 수업의 수업모형이나 교재의 구성방식이 획일화 되어 있었다. 금융수업은 기본적으로 문제 해결 수업 모형을 기본으로 하지만 상황에 따라 여러 가지 수업모형을 적용할 수 있게 하였다. 하지만 금융 교재는 수업모형을 문제해결 수업모형으로 고정시키고 교사의 발문과 학생의 응답 위주의 수업이 전개되었다. 이것은 학생들의 사고력을 저해하고 지나치게 금융지식의 습득만을 강조하게 되어 기능과 가치태도 습득에 한계가 있었다.

또한 교재의 구성방식도 획일화되어 있어 차시가 진행이 될수록 학생들이 지루해 하는 경향을 보였다. 동기유발-활동1-활동2-활동3-퀴즈와 골든벨 활동이 매 차시 마다 천편일률적으로 똑같이 구성되어 있었으며 활동1, 2, 3 역시 비슷비슷한 활동들로 구성되어 있었다. 동기 유발 자료의 경우 학생들의 금융상황에서의 문제제기를 할 수 있는 좋은 자료들이지만 매차시마다 똑같은 형태의 만화자료를 사용하여 금융수업 초기에 비해 흥미와 관심이 많이 떨어지는 문제점을 보였다.

둘째, 수업에 사용되는 발문이 사실적 지식을 묻는 발문으로 편중되어 있어 학생의 사고력이나 문제 해결능력과 같은 기능을 발달시키는데 한계가 있었다. 기능을 요구하는 듯한 발문도 있었지만 실제로 교재에 답이 제시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 사실적 지식의 확인의 경우가 많았다. 또한 학습 목표가 기능 영역의 성격을 띠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는 방법을 아는” 수준에 머물러 여러 실제적인 금융 기능을 습득하지 못하였다. 그리고 가치태도를 묻는 발문도 그 수가 적어서 보통 한 차시에 없는 경우도 있고 1회 정도 있는 경우도 많았다. 그러므로 교사가 성취기준과 학습목표를 보고 발문의 성격과 내용을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

셋째, 다양한 금융 체험활동이 부족하였다. 물론 만화그리기 활동이나 안내판 만들기 등 학생들이 좋아하는 활동도 있었다. 하지만 수업에 핵심인 용돈기입장 쓰기, 정보찾아보기, 통장 만들기와 같은 활동은 꼭 실습해 보아야 할 활동이지만 방법만 인지하는 형태의 수업이 진행되었다. 이것은 보편적인 교육 현장을 고려한 금융교육 표준안에 따른 교재의 한계인 것으로 판단된다. 학교의 현장에 따라 학교와 교사가 내용을 수정하더라도 과감하게 체험활동을 교육과정에 포함시키거나 힘들다면 교실에서 대체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활동이나 자료를 제시해 주어야 할 것이다.

넷째, 수업 상황에 맞는 교수학습 방법과 다양한 수업기법의 활용할 필요가 있었다. 앞에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수업의 구성방식이 획일화 되고, 발문과 답변이 중심이 되는 수업이 되다보니 학생들의 창의력이나 금융상황에서의 문제해결능력 등이 발현되는 수업의 상황들이 보이지 않았다. 그래서 이러한 능력들을 발현시킬 수 있는 자유 연상 기법과 같은 여러 가지 수업 기법을 투입할 필요가 있다. 또한 학습자의 내재적 학습동기를 고취시킬 수 있는 조사 발표 학습이나 어려운 금융 개념을 쉽게 학습 할 수 있는 게임이나 시뮬레이션과 같은 교수-학습 방법을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다. 이외에 경제 금융교육에 적합한 여러 가지 다양한 학습 방법과 기법을 활용한다면 금융 교재의 효과를 더욱 살릴 수 있을 것이다.

다섯째, 자료나 활동에 대한 교사의 연구와 재구성이 필요하다. 지도서만 있으면 쉽게 수업할 수 있게 지도서를 구성하다 보니 아무래도 어려운 활동은 제외되고 학급 교실에서 실현 가능한 활동만으로 구성될 수 밖에 없는 것이 금융교육 표준안에 따른 교재가 가진 한계일 것이다. 또한 다양하지 못하고 획일화 된 형태의 교수-학습 방법을 극복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과 기법을 수업에 투입하는 것도 교사의 몫이 될 것이다. 교육은 교사의 질을 넘어설 수 없다는 말이 있듯이 금융 교육도 교사 스스로 금융 지식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학생들에게 올바른 금융 지식을 가르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교사가 가지고 있는 금융에 대한 가치관이 학생들에게 투영될 수 있다는 점을 생각한다면 교사 스스로의 노력이 더욱 요구된다. 하지만 교사 스스로의 노력도 한계가 있다.

앞에서 살펴본 연구 결과에 비추어 다음 몇 가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금융교육 표준안에 따른 금융교육 교재에 제시되어 있는 학습 목표 및 교육 내용의 재검토가 필요하다.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금융교육 표준안의 성취기준을 달성하기 위한 교재의 학습목표가 지나치게 금융지식에 편중되어 있다. 교육 내용 중 성취수준이 중등이나 고등에 적합한 어려운 내용들이 발견되었고, 이러한 내용들을 학생들이 습득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또한 초등 성취 기준과 학습목표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도 다수 발견되었다. 그러므로 성취기준과 그 수준에 관한 내용들을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

둘째, 교재의 구성방식이 획일화 되어 있어 수업 목표와 수업 상황에 맞게 교재의 구성방식이 바뀔 필요가 있다. 교재에는 동기유발 자료나 그림 등 학생들의 관심과 흥미를 끌 만한 자료들이 많았다. 하지만 자료의 제시형태가 일정하다 보니 학생들이 점점 자료에 대해 흥미를 잃었다. 또한 수업목표와 무관하게 교재의 구성방식이 획일화되어 있어 수업 상황과 목표에 맞게 교재의 구성방식의 변화에 융통성을 부여한다면 더 좋은 교재가 될 것이다.

셋째, 교사가 금융교육 표준안에 따른 교육과정과 교재 재구성을 할 필요가 있다. 일반 교과도 교육과정과 그에 따른 교과서가 있지만 일선 현장에서는 활발하게 재구성이 일어난다. 교육과정과 교과서는 말 그대로 표준이지 꼭 그대로 실행할 필요는 없다는 인식이 확산되어 있기 때문이다. 금융교육도 마찬가지이다. 주어진 교육과정과 교재를 그대로 적용하기 보다는 교사가 융통성을 발휘하여 재구성을 할 때 교육의 효과가 더 클 것이다.

넷째, 금융교육에 필요한 교사 교육과 연수가 필요하다. 금융 교육을 하다보면 교사의 금융에 대한 가치와 태도가 그대로 학생들에게 전수가 되는 경우가 있다. 초등 교사의 경우 금융에 대한 지식이 아무래도 부족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교육대학에서부터 예비 교사를 위한 금융교육을 강화해야 했고, 현직 교사들을 위한 연수도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다섯째, 금융교육 표준안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일선 학교의 금융교육의 의지가 필요하다. 금융교육에 대한 필요성이 국가 사회적으로 높지만 막상 교육 현장에서는 그 의지가 미미하다. 우리나라의 여건상 학교 교육이 가지는 힘이 막강하고, 특히 초등의 경우는 더욱 그렇다. 그러므로 일선 학교에서 금융교육에 의지를 가지고 금융교육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여건상 교과교육과정을 통해 금융교육이 실시되기 힘들다면, 창의적 체험활동이나 동아리 활동, 재량활동을 통해 금융교육을 실시하여 학생들의 금융지식과 금융역량, 바람직한 금융가치관을 형성시켜주어야 할 것이다.

여섯째, 후속연구로는 금융교육 표준안에 따른 금융교육에 대한 연구가 대규모로 진행되어야 할 것이며, 또한 효과성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실험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번 연구는 5학년 1개반을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결론의 일반화에 한계가 있다. 앞으로 표준안을 개발한 금융감독원과 한국교육과정 평가원 뿐만 아니라 금융 단체, 일선 학교에서 표준안에 따른 광범위한 연구가 실시되어, 일반화할 필요가 있겠다. 또한 본 연구가 실행을 통한 장점과 시사점 도출에 초점을 두었기 때문에 구체적인 비교집단을 설정하여 금융교육 표준안에 따른 금융 수업의 효과를 살펴보는 못했다. 앞으로 이러한 실험연구가 이루어지길 바란다.

< 참고 문헌 >

- 고순화·차경옥(2008). 학교 외 금융소비자교육 프로그램 내용분석. 소비자정책교육연구, 4(4), 61-80.
- 구재운(2005). 지역금융과 지역경제성장 사이의 인과관계. 한국경제연구, 15, 179-197.
- 금융감독원(2012). 초등학교 슬기로운 생활 금융. 서울:금융감독원.
- 금융감독원(2012). 초등학교 슬기로운 생활 금융 교사용 지도서. 서울:금융감독원.
- 금융감독원(2007). 금융교육 강화방안. 서울:금융감독원.
- 금융감독원·교육과정평가원(2010). 『초·중·고 금융교육표준안』 연구보고서. 서울:금융감독원.
- 기획재정부(2008). 경제교육 활성화 방안 및 경제교육지원법 입법예고. 한국개발연구원.
- 김진숙(1999). 미국의 기준 운동에 비추어 본 한국의 절대평가기준 개발. 교육과정연구, 17(2), 339-362.
- 노형식(2009). 금주의 논란 : 금융위기와 금융교육의 중요성. 주간 금융 브리프, 18(17), 3-7.
- 류재택·강운선(2000). 제 7차 교육과정에 따른 3학년 성취기준 및 평가기준 개발 연구. 서울:한국교육과정 평가원.
- 방혜영(2010). 금융교육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 국제기구 및 미·영의 금융교육전략 분석.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 오수진(2012). 소비자 금융교육효과 측정 구성체계에 관한 연구:중학생의 금융지식과 금융행동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소비자정책교육연구, 8(3), 113-130.
- 윤선미(2007). 학교 밖 경제교육 프로그램에 관한 탐색적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 전창환(2008). 신자유주의적 금융화와 자본시장의 경쟁력 강화 경쟁. 동향과 전망, 73, 104-127.
- 조영석·박송춘(2010). 우리나라 금융교육의 방향성 탐색. 대한경제학회지, 23(2), 1185-1203.